

Issue Paper 2004-02

생애진로개발 지원의 현황 및 정책 과제

임 언

2004. 10.

생애진로개발 지원의 현황 및 정책 과제

임 언*

< 목 차 >

I. 논의의 필요성 및 개념 정의	1
II. 대상별 진로개발 지원의 현황 및 과제	4
III. 전 국민의 생애진로개발 지원체제 구축	10
IV. 결론 및 제언	17
참고문헌	19

국가 경쟁력 제고, 국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진로개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양한 국면에서 강조되고 있다. 전국민의 생애에 걸친 진로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대상별로 차별성 있는 접근과 전 대상을 아우르는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접근이 동시에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진로교육에 대한 논의 및 진로개발 지원 노력은 대상별로 분절되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는 가운데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국민의 생애진로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하며 구체적인 과제가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었다. 결론으로 제시된 제안은 중앙부처간의 협력 강화를 바탕으로 전국민에 대한 생애진로개발 지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진로정보센터 소장 (e-mail : elim@krivet.re.kr)

I. 논의의 필요성 및 개념 정의

1. 진로지도 및 교육의 중요성

■ 진로지도 및 교육에 대한 강조

-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국가경쟁력은 인적자원개발에 있으며,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와 평생고용가능성 제고는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주요 관건 중의 하나임. 국민의 진로개발 지원이 인적자원개발 및 사회통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선진 각국에서는 전국민의 진로개발 지원을 주요한 정책적 이슈로 강조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OECD, 2004; Sultana, 2004).
- 우리 나라에서 진로지도는 청년실업문제, 사교육비경감문제, 학벌타파, 직업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강조됨.

■ 노동시장 참여 제고 및 사회통합에 기여

- 진로지도 및 교육이 노동시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바는 유연성으로 대변되는 직업세계의 변화 현실을 알려주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을 길러주는 데 있음. 진로교육을 통하여 개인이 자기주도적으로 삶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고용가능성을 유지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이동성을 높이도록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탈락하지 않고 참여할 수 있게 함(Watts & Sultana, 2003).
- 진로지도 및 교육은 개인이 사회적으로 탈락하는 것을 최대한 막고, 이미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이 다시 교육훈련 및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서 사회통합에 기여함. 진로지도의 강화를 통하여 취약계층이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것을 줄임으로서 사회통합에 기여하며, 개인의 요구와 사회적 요구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사회발전의 순환유 역할을 할 수 있음(Kileen, Watts, & Kidd, 1999).
- 특히, 학교 교육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탈락하는 청소년들은 능력에 대한 자신감 부족, 기회에 대한 지식의 부족, 차별적 대우로 인한 의기소침함 만이 아니라, 교육을 잘 받는 것이 사회적 성취 또는 취업과 무관하다거나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이 직업세계에서의 삶과 관련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Watts & Sultana, 2003). 진로교육을 통하여 이와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교육과 훈련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시장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음.

■ 교육에 대한 동기 및 성취수준 제고

- 진로교육은 그 자체가 교육적 활동이지만, 이를 통하여 다른 교육적 활동에 대하여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즉, 현재 하고 있는 공부가 장래의 직업생활과 갖는 관련성을 명료히 인식하고 선택할 수 있는 교육적 경로에 대한 인식을 넓힘으로써 학습동기가 제고되

며, 나아가 교육적 성취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Morris, Rudd, Nelson, & Davies(2000)가 영국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30개 학교 진로교육 현황을 양적 및 질적 방법을 통하여 검토한 결과
 - 진로교육은 학교의 교육과정과 조직의 변화 및 발전에 핵심적인 요소로서 기능
 - 학생들의 자기존중감과 동기 제고
 - 중도탈락자 감소
 - 진로교육을 제대로 하는 학교일수록 교육과정을 잘 관리하고, 교과간 연계를 강화하며, 고용주나 지역사회 인사와의 연계도 잘 하는 것으로 확인
- 미국 주정부 차원에서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책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Gahris, 1999; Maddy-Bernstein, 2000)에 의하면 진로교육을 학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한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에 비하여 진로성숙도가 높고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함.

■ 개인의 행복한 삶

- 진로지도 및 교육의 효과를 노동시장에의 기여 및 교육의 효과 제고라는 측면에서만 강조하는 것은 진로교육의 외재적 가치만을 강조하는 것임. 진로지도 및 교육은 개인에서 출발하며, 개인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을 도와줌으로서 개인의 행복한 삶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음. 개인의 경험과 선택의 폭이 사회 속에서 제한된다는 점에서 개인에만 초점을 둔 접근은 한계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진로교육은 개인이 사회와 긴장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함에 있어서 그 중심을 개인과 사회에 비슷한 가중치를 갖는다고 봄.
- 진로지도 및 교육이 갖는 사회적 효과를 강조하는 것이 결코 진로교육의 개인적 의미를 간과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목소리 내기라고 볼 수 있음.

2. 개념 정의

■ 진로(career): 개념의 종적, 횡적 확대

- 진로(career)라는 개념이 직업(vocation, occupation)과 거의 혼용되는 가운데 진로를 보수를 받는 직업에 한정하여 논의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진로는 보수를 받는 직업만이 아니라 자원봉사, 가정에서의 일, 여가, 보수 없이 하는 일들이 모두 포함되는 포괄적인 개념임 (Miller-Tiedeman, 1996; McDanial, 1976; Herr & Cramer, 1996).
- 진로의 개념을 직업을 넘어서 횡적으로 확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종적으로 확대하여 직업생활 이전과 이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진로의 개념을 발달적 차원에서 보는 견해(Ginsberg, Ginzburg, Axelrad & Herma, 1951)는 이미 오래 전에 있었으나, 그것이 일생에 걸칠 과정이라는 점, 직업을 넘어서는 포괄적이며 총체적인 개념이라는 견해는(Super, 1980) 비교적 최근에 강조됨(Gysbers, 1996).

- 진로의 개념을 종과 횡으로 확대할 때, 진로는 평생 동안 개인이 갖는 경험 또는 지위의 총체로서 직업을 갖기 이전의 경험과 은퇴한 후의 활동을 포함하며, 직업만이 아니라 여가, 사회활동, 가정에서의 일들을 포괄함. 따라서 진로를 계획한다는 것은 삶의 계획이며, 무엇을 할 것인가를 넘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포함함.

■ 진로개발(career development)

- career development라는 용어가 사용된 초기에는 개인의 진로발달은 개인의 심리발달의 일부로서 간주하여 진로성숙이라는 용어와 거의 혼용되었음. 그러나 진로발달의 과정이 심리학적 발달의 일반적 전제라 할 수 있는 비가역성의 원리를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 전생애를 걸쳐서 순환하는 측면이 강조되었음. 사회·정책적 측면에서의 적극적 지원의 필요성(진미석·윤형한, 2003), 수동적으로 정해진 경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구성하는 의지의 측면이 부각(최동선, 2003)되는 가운데 개발이라는 용어가 사용됨.
- 경영학적 접근에서 career development를 경력개발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나, 이는 상대적으로 성인이라는 제한된 맥락에서만 통용이 가능하며 관찮은 직업과 관련된 가치판단적이며 부가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생애를 관통하며 삶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용어로서 제약을 가짐. 따라서 전생애를 통하여 동일한 용어로 활용하며 자기주도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진로개발이라는 용어가 보다 범용성을 가짐.
- 진로개발은 개인이 자기주도적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직업세계를 포함한 주변 세계를 이해하는 가운데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적응해가는 과정 및 활동의 총칭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생애진로개발이란 일생에 걸친 지속적인 과정임을 한층 더 강조하는 용어임.

■ 진로교육, 진로지도

- 진로의 협소한 개념을 버리고 이와 같이 직업을 넘어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하며, 생애에 걸친 경험과 활동의 총체로서 확대할 때, 진로지도 또는 교육의 지향점을 특정 시기의 진로선택에서 보다 장기적이며 기초적인 역량을 길러주는 것으로 무게 중심을 옮길 필요가 있음.
- 진로지도와 진로교육은 학령기 학생 대상의 진학지도나 취업알선이라는 측면에서 보던 개념에서 확장되어 학생을 포함한 성인들, 다양한 계층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들의 진로 선택과 준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활동과 직업활동을 포함한 서비스 활동임(정철영, 2002).
- 진로교육이란 개인이 진로를 선택하고, 선택한 진로에 적응하고 발달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둔 교육으로, 각 개인이 자신과 일의 세계를 인식 및 탐색하여 자기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선택하고, 선택한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취학 전부터 시작하여 평생동안 학교, 가정, 사회에서 가르치고, 지도하고, 도와주는 활동임(정철영, 2004)
- 진로교육은 진로개발 지원이며, 진로개발지원이란 개인이 자기주도적인 생애설계자가 될 수 있도록 자아이해, 직업세계 이해, 의사결정과 설계, 실천, 변화 이해와 대응의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하는 활동임(진미석, 2004)

- 확대된 진로의 개념에 기초할 때 진로교육은 개인이 일생 동안 자기주도적으로 진로개발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진로지도는 구체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진로개발 역량을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보다 구체적인 과정을 의미함. 진로지도가 진로선택과 관련된 활동에 초점을 두는 반면에 진로교육은 보다 기초적이며 폭 넓은 의미를 내포함.

■ 제한된 개념 적용이 야기하는 문제

- 학문적 논의 틀 속에서 개념이 종적·횡적으로 확대되고, 이를 많은 학자들이 공유한 것과는 별개로, 진로지도 및 교육의 실제에서는 이와 같이 확장된 개념을 전제로 소통하지 않음.
- 논리적으로 정의한 개념과 실제로 통용되는 개념간의 간극이 큰 가운데, 진로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이루어지는 활동들은 매우 제한되고 단편적인 활동들이 주를 이룸. 진로지도 및 교육을 학령기의 진학 또는 직업 선택에 한정하여 이해하며, 진로지도 및 진로교육은 그러한 선택을 위해 제공되는 상담활동을 중심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음.
- 진로의 개념을 이와 같이 협소하게 이해하게 된 원인은 그 동안 진로교육의 목표 및 범위에 대한 담론이 부족했다는 점과 진로교육에 대한 논의가 진로상담이라는 관점에서 개인적인 선택과 심리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는 점과 관련이 있음. 진로교육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 지나치게 심리학 위주라는 문제의식 아래, 최근의 진로개발에 관한 이론들은 심리학적인 관점을 넘어서 사회적인 맥락을 강조하는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음(Lent, 1996).

3. 논의의 목적

- 평생학습을 지향하는 사회에서 국가의 주요 역할 중의 하나는 학령기에서 노년기까지 생애를 아우르는 진로개발 지원 전략을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임.
- 그 동안 대상별 진로개발 지원을 위한 논의들이 있었으나 이를 아우르는 논의는 부재하였음. 이는 대상별로 문제진단과 해결방안이 다양할 수 밖에 없으며, 각 대상안에서도 하위 집단별 특성이 존재하므로 모두를 아우르는 논의를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
- 이 글에서는 대상별 진로개발 지원을 위하여 기존에 논의된 사항들을 정리하는 가운데, 생애진로개발지원이라는 관점에서 대상별 진로개발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며 아울러 대상별 차이를 뛰어넘는 공통된 과제를 도출함으로써 국가인적자원개발과 개인의 행복한 삶 지원을 위한 진로개발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II. 대상별 진로개발 지원의 현황 및 과제

1. 초·중·고등 학생의 진로개발 지원

■ 현황

-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현황이 국가적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전국규모 조사는 진미석·손유미(2000)가 156개 학교 진로상담 부장에 대한 우편조사이다.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 진로지도 활동은 심리검사(98.1%), 인쇄자료(85.7%), 진로의날 행사(50.7%), 외부강사초빙(41.1%)으로 구성됨.
 - 진로지도 실시 시간은 정규교과목시간(41.6%), HR시간(26.9%), 진로주간 및 진로의날(21.1%), 클럽활동(9.6%)으로 정규교과목 시간이 가장 높게 나타남. 2002년 이후에는 고등학교에서 진로와 직업 과목이 선택되어 교과를 통한 진로교육의 비율이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됨.
 -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에서 진로상담의 비중이 20%이하라고 응답한 경우가 44.4%로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진로지도 예로 사항으로 시간부족(31.6%), 체계적 교육과정 부족(22.6%), 전문인력 부족(16.8%)을 들고 있음.
- 교과를 통한 진로교육
 - 7차 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을 명시적으로 단원이나 절의 제목으로 제시한 경우는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6학년 실과 교과, 중학교의 3학년 기술·가정 교과에서 진로선택 및 산업에 대한 내용이 일부 포함됨. 고등학교의 경우 진로와 직업을 하나의 과목으로 선택하거나, 농업, 시민윤리, 생활경제, 교육학을 선택할 경우 진로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부분적으로 접할 기회가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기간에는 한번도 진로교육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 중학교 교과재량 1,399개교(46.7%), 고등학교 교과재량 649개교(31%), 선택교과로는 546개교(26%)에서 운영(교육인적자원부 미발간 자료, 2004).

■ 과제

- 교과를 통한 진로교육 강화
 - 향후 교육과정 구성 시 정규 교과 내에 1년에 한번은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다룰 수 있도록 다양한 교과(사회, 기술가정, 경제, 도덕 및 윤리 등) 내에 교차하여 하나의 장 또는 절로서 포함하는 것이 필요. 진로개발이 특정 시기의 진로선택을 통하여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직업세계를 포함한 주변 사회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는 가운데, 자신의 삶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므로 정기적으로 이를 점검하고 심화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구성될 필요가 있음.
 - 유럽연합체에서 수행한 연구에 의하면, 진로교육이 교육과정 속에 반영되는 방식은 다양함*. 진로교육을 별도의 교과로 집중하여 가르치는 것은 집중적인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진로교육의 범위를 진로 선택 및 정보 탐색과 같이 제한된 영역으로 한정하여

* ①독립된 교과로 운영하는 경우(호주, 체코, 핀란드, 그리스, 사이프러스, 스페인), ②사회, 시민교육 등 보다 광범위한 교과에 포함한 경우(헝가리, 라트비아, 말타, 폴란드), ③모든 교과에 스며든 경우(덴마크, 그리스), ④세미나와 워크숍으로 제공하는 경우(프랑스, 말타, 폴란드), ⑤중앙집권화되지 않아 다양한 모델 선택을 하는 경우(호주, 벨기에, 체코, 스페인, 영국)가 있음(Cedefop, 2004)

보다 기초적인 역량을 다양한 국면에서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데 제약이 따름. 그러나 한편으로 암시적 진로교육을 포함하여 전 교과 활동에 진로교육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과 같이 진로교육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할 때, 어느 교과에서도 제대로 진로교육을 하지 않아 진로교육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따라서 범 교과적인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

- 자기주도적으로 삶을 영위하며, 직업세계에서 필요한 기초 역량을 갖추는 것은 특정 교과를 통하여 단기적으로 교육하기 힘들며, 범교과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대인관계능력, 기초 학습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력, 자기관리능력과 같은 직업기초능력은 진로교육의 목표 이면서 동시에 각 교과 교육의 목표이기도 함.
-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과별로 포함된 진로교육의 요소들을 발견하고 이를 명료히 하는 것이 필요함.
- 모든 교사는 자신의 교육활동이 학생들의 진로에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를 고민하고 이를 학생들과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
-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강화
-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과교육 만이 아니라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해서 진로교육이 가능함. 이는 단위학교에서 의지만 있으면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적어도 교육과정 상에서는 확보되었음을 의미함(송병국, 2002). 따라서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한 진로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 및 교사 연수 등 지원이 요청됨
- 특별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강화
- 7차 교육과정에서 특별활동**의 목표는 '다양하고 건전한 집단 활동에 집단적으로 참여하여 개성과 소질을 계발, 신장하고, 공동체 의식과 자율적인 태도를 기름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함양한다'로서 진로교육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상당히 중복됨(송병국, 2002).
- 변화하는 사회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려면, 대인관계능력, 협업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관리 능력, 정보활용능력 등 직업기초능력이 주요한 진로개발 역량이며(서우석, 2002; 임언, 2002), 특별활동에 포함된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은 직업기초능력 제고, 나아가 이는 곧 진로개발 역량을 기르는 좋은 기회로 활용 할 수 있음.

* 초등학교의 경우 연간 재량활동이 최소 68시간 이상이며 이중 상당 시간을 창의적 재량활동에 활용할 수 있음.

중학교는 136시간의 재량활동 중 34시간이, 고등학교는 1학년 때 창의적 재량활동에 2단위가 배정되어 있음

** 특별활동을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으로 구분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은 1시간, 고학년은 2시간, 중학교는 연간 68시간, 고등학교는 총 12단위의 시간을 편제하였다.

*** 협의활동, 역할분담활동, 민주시민활동

**** 기본 생활습관 형성 활동, 친교활동, 상담활동, 진로활동, 정체성확립활동

***** 학술문예활동, 보건체육활동, 실습노작활동, 여가문화활동, 정보통신활동, 청소년단체활동

* 일손돕기활동, 위문활동, 캠페인활동, 자선구호활동, 환경시설보전활동

** 의식행사활동, 학예행사활동, 보건체육행사활동, 수련활동, 안전구호활동, 교류활동

2. 대학생 진로개발 지원

■ 현황

- 경력직 선호 등의 고용관행의 변화 속에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
- 2004년 4년제 대졸 취업률 56.4%(2002년 60.7%)
- 대학생 시기에도 여전히 진로탐색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 대학진학률이 1995년 51.4%에서 2003년 79.9%로 상승하는 가운데, 대학 재학 시기로 진로탐색이 연기되는 경향.
- 재학중 전공을 결정한 학생 중, 입학시 희망 전공과 다른 전공을 선택한 경우가 38.4%라는 사실에서 진로선택이 가변적임을 시사, 40.7%의 학생이 복수전공 또는 편입을 고려하고 있어 모종의 전공탐색이 이어짐(임언 외, 2003)
- 대학내 진로개발 지원 센터 이용 저조
- 민무숙 외(2002)가 조사한 대학 재학생 진로 및 취업관련 대학내 시설이나 기구 활용도 및 만족도에 의하면 대학취업관련 정보실을 이용한 학생은 30%정도로서(여성:30.4%, 남성:30.3%), 높지 않았으며, 학생생활연구소나 상담센터를 이용한 학생은 그보다 훨씬 적음(여자:10.3%, 남자:11.0%). 대학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라는 학생의 비율도 48.8%로 높으나, 도움이 되는 정보가 없기 때문이라는 학생의 비율도 32.7%
- 임언 외(2003)의 조사에서도 학생생활연구소 개인상담(6.9%)과 취업정보실 개인상담(4.3%) 이용률은 낮은 반면에 진로관련검사에 대한 경험은 46.6%의 학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기관의 주요 서비스가 심리검사라는 추측을 하게 함. 전공선배와의 진로관련 대화(57.9%), 교수와의 진로관련 대화(38.7%), 진로 및 직업탐색 교과목 수강(31.6%), 취업세미나 및 특강(27.7%), 교내 취업전산망을 통한 정보수집(25.8%)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절반을 상회하는 학생이 전공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진미석·한상근, 2002).

■ 과제

- 진로개발 지원 조직의 체계화 및 전문성 강화
- 현재 학생생활연구소와 취업정보센터로 이원화된 조직을 진로개발지원센터(종합인력개발센터)로 일원화하여 운영하되, 전문성있는 인력을 보강하고 조직의 위상을 강화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대학내 연간 진로개발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 취업 통계 생성 및 전산망 운영
- 진로관련 교과 및 특강 개설 운영
- '박람회', '취업주간' 등 행사
- 기업체 방문을 통한 구인 개척
- 직장체험 프로그램 지원

- 대학내에서의 진로개발 지원을 진로개발지원센터에서 전담할 수는 없으며 각 대학 또는 학과별로 진로개발 지원을 위한 상시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있음.
- 전공별 동문초청 세미나 및 네트워킹
- 전공별 진로 경로에 대한 적극적 안내
- 산업체가 요구하는 능력 개발을 위한 연구
- ‘취업지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졸업생의 취업을 적극 지원하며 취업준비를 위한 조언 제공
- 타 기관과의 연계 강화
- 산업체와의 연계 하에 내실있는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와의 연계 하에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지원
- 공공 직업안정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성취프로그램, 청년층취업지도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의 적극 활용

3. 성인의 진로개발 지원

■ 현황

-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를 맞아 미래에 대한 개인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으며, ‘사오정’, ‘오륙도’, ‘삼팔선’ 등 경제 주력층이 일선에서 밀려나는 시기가 갈수록 당겨지는 가운데, 성인의 진로개발 지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박운영, 2004).
- 진로개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높음(절실하다:59.1%, 매우 절실하다:21.1%)(진미석·윤형한, 2003).
- 성인진로개발지원 시스템의 미비로 인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경우는 매우 제한됨.
- 근로자 10명중 6명이 자신의 진로 문제와 관련해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의논 상대가 있다해도 가족(41.3%), 친구(32.5%), 회사동료(15.6%), 직장상사(7.6%), 민간컨설팅기관(2.5%), 회사인사팀(0.6%)의 순서로 나타나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진미석, 2003)
-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취약한 진로개발 지원 기능
- 현재 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직업안정기관은 모두 11종으로 노동부 산하의 고용안정센터(155개소), 일일취업센터(16개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취업정보센터(253개소), 서울시의 고령자취업알선센터(19개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연수원(선원 취업알선), 국가보훈처 취업지원시스템, 국방부 국방취업지원센터(군전역 인력 취업알선), 한국산업인력공단 취업정보센터(기술기능인력), 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취업알선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은행에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김승택·신현구, 2004, 박운영; 2004에서 재인용).
- 이들 기관 중 일반인에 대한 진로개발 지원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고용안정센터의 경우, 담당자들 중 상담관련 경력이 있는 경우는 20.4%에 불과하며 취업지원업무보다는 고용보험업무의 비중이 더 증가하고 있음(김승택·신현구, 2004, 박운영, 2004에서 재인용).

- 공공고용안정센터 방문객의 목적으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실업급여수급(78.2%), 취업알선(20.6%)이 대부분이었으며, 직업훈련상담확인증발급은 0.3%, 취업정보 수집 및 조연은 0.6%로 지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남.
- 기업내 근로자 진로개발 지원 서비스는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대기업을 경우 사내연수를 통하여 중소기업은 기관위탁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진미석·윤희한(2003)이 기업체 내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의하면
- 회사에서의 진로개발 지원 형태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직무관련 사내연수(40.2%), 전문교육훈련기관 위탁(45.3%)이며, 퇴직후 재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지원(3.4%)이나 생애설계를 위한 교육 및 상담(1.7%)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드물었음.
- 기업에서 진로개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는 기업의 책임감 부재(32.2%), 비용부담(38.9%), 프로그램 부재(13.3%), 전문인력 부재(13.3%)임.
- 정부와 공공기관과 기업이 충분하게 개인의 진로개발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에서 진로개발을 지원하는 컨설팅 업체들이 등장(박운영, 2004)
- 외국 아웃플레이스먼트 컨설팅 회사의 국내 진출, 총 시장 규모는 연간 400억 정도로 추산, 대기업은 일인당 75만원 중소기업은 일인당 100만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나 실제 비용을 이보다 더 높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엄두도 못내는 현실
- 개인별 맞춤형 커리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등장하였으나 제한된 범위에서 활용되고 있는 실정

■ 과제

- 성인 진로개발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하여 진미석·윤희한(2003)이 제안한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사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국가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성인진로개발 지원을 위한 법적 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현재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서 직업훈련, 취업정보제공, 알선의 개별 활동에 대한 지원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들을 종합하는 가운데 생애에 걸친 체계적인 진로개발 지원의 필요성 및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따라서 전국민에 대한 생애에 걸친 진로개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공고용안정센터 기능 내실화
-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고용보험사무로서의 인식되는 문제, 중하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 제한된 것을 넘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에 중점을 두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로 인한 낙인효과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대폭 다양화, 강화할 필요
- 기업의 진로개발 지원 촉진
- 재직근로자의 진로개발 지원이 기업의 주요 책무로서 인식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

- 기업체 인사담당자들이 인사관리라는 개념을 벗어나 근로자의 진로개발을 지원하는 연수 및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환 필요
- 성인진로개발 지원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 진로상담가나 진로개발지원촉진자(career development facilitator)의 체계적 양성 과정이 부재하며, 현장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직업상담사의 경우 전문성을 신장하기 어려운 상황
- 성인 진로개발 지원 인력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할 필요

Ⅲ. 전국민의 생애진로개발 지원 체제 구축

- II장에서 주요 대상(초·중등학생, 대학생, 성인)의 진로개발 지원 현황 및 과제를 검토한 결과, 각각 대상별로 관련 부처가 다르고 이해 당사자가 다르다하더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아우르는 안목으로 일관된 정책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음. 위에서 논의된 대상 외에도 다양한 취약계층에 대하여 진로개발 지원이 체계적으로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주관할 수 있는 주체가 요구됨. 이 장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전국민의 생애진로개발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1. 국가적 차원의 리더십 발휘

■ 국가적 전략 및 중심체의 필요성

-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가속화, 세계화 및 기술의 발달은 기업이 개인의 경력을 관리하고 개발해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이 진로를 개발해야 하며, 이를 국가가 지원해야 함. 국가가 개인의 평생 동안의 진로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함에 있어서 전략이 요구됨(Watts, 2000). 국가가 진로지도와 관련된 주체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생애진로개발의 관점에서 조정능력을 가지고 명확한 목표 의식 아래 전략을 세우고 실행해 갈 수 있는 지도력이 요청됨.

■ 외국의 국가적 전략의 사례

- 캐나다의 경우, 인적자원개발부(HRDC)의 주관 아래 ‘진로 및 직업으로의 전이 서비스 기본틀’(Career and Transition Services Framework: an effective national approach to youth transitions)(Bezanson & Hiebert, 1996)을 구성하여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였음.
- 호주에서는 ‘고용, 교육, 훈련 및 청년부처위원회’(Ministerial Council for Employment, Education, Training and Youth Affairs*, 1999)를 구성하여 진로교육과 관련한 각종 사업 및 연구 추진의 핵심체로서 작동

* The Ministerial Council for Education, Employment, Training and Youth Affairs는 1993년 호주 정부가 관련된 영역에서의 정책 수립에서의 협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여러부처의 위원회(교육위원회, 직업교육고용및 훈련위원회, 청소년정책위원회)를 통합하여 교육, 고용, 훈련, 및 청소년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영국은 교육기술부(DfES)를 중심으로 정보, 조언 및 지도 위원회(Information, Advice, and Guidance Board)를 구성하여 진로개발 지원을 위한 방향성을 수립하였으며, 학교 진로교육 및 지도를 위한 국가 기본틀*(Careers Education and Guidance in England, a national framework 11-19. DfES, 2003)을 개발하여 학교, 대학, 훈련기관에서의 진로교육 및 지도를 위한 기준을 안내

■ 우리 나라의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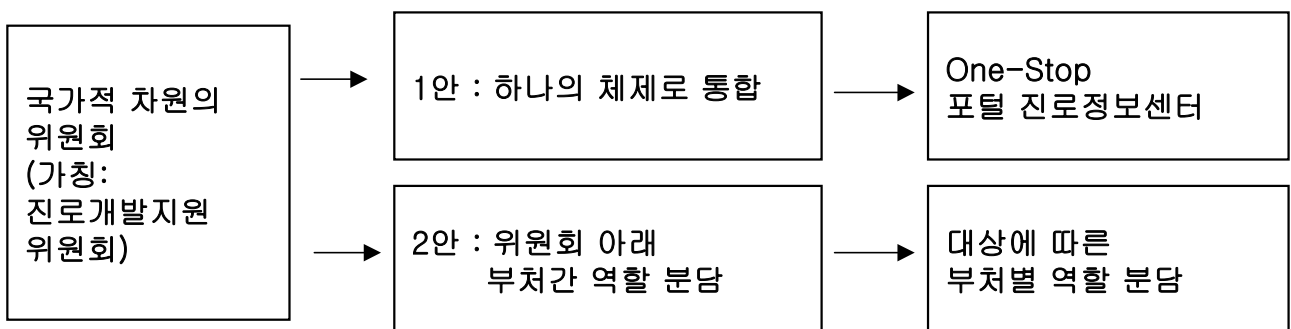
- 초중고 학생을 위한 진로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개발국 산학협력과가 담당. 시도교육청 담당자와 연계하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진로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지원
- 성인 및 비진학자, 중고령자의 진로개발 지원을 위한 채용 및 시스템은 노동부 측에서 관장하고 있음. 최근에는 노동부가 학령층을 위한 각종 사업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의 진로개발과 관련하여 여성부, 청소년 권익 및 보호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에서 부분적으로 관여하고 있음.
- 부처간 수평적 연계의 예로서 노동부가 주관하여 2003년 청년실업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범정부적 활성화 기획단을 구성하고, 실무작업팀을 각부처 및 연구기관, 경제단체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사업을 발굴하였음.
 - 이 기획단 구성의 결과로 2004년 노동부에서 초중고 대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취업지원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Job World 설립과 같은 사업들을 추진하였음.
 - 노동부가 주관이 되었고 노동부 중심의 사업이 주를 이루었으며 타부서의 적극적 참여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연계의 성과는 미비
- 수직적 연계의 예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인적자원개발국 산학협력과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정보센터가 중심이 되어 시도교육청 진로교육업무 담당자와 시도교육과학원 진로교육담당자, 시도 연수원 담당자들 간에 공식적인 협의체로서 「전국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
 - 2004년 3월과 6월, 9월 32차례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연말까지 총 4차 회의까지 진행될 예정.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중요한 연계의 시도라 볼 수 있으나, 교육인적자원부 내에서만의 연계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어, 향후 타부처 소속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연계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 관계 기관간의 연계 방안

- 진로교육 체제 정비를 위하여 정철영(2002)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교육기관 및 노동 관련 단체가 광범위하게 연계하여 중앙차원의 “One-Stop 포털진로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그림 1 참조]).

* 이 틀 속에는 11세부터 19세까지의 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이상적인 학습 결과와 교육내용을 제안하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프레임워크 활용법, 일관된 진로지도 서비스에 대한 충고, 질제고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개인이 학습을 통하여 자기발전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가운데 직업세계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서 성취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One-Stop 포털진로센터”는 ① on-line과 off-line의 통합, ② 중앙과 지역의 통합 연계, ③ 교육훈련망과 노동시장망의 통합을 통하여 각종 진로지도 및 직업안정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개발, 자료의 개발 및 보급, 관련 정책연구 수행, 전문가 연수 기능을 수행하는 명실상부한 포털 기관을 지향
- 이 연계 방안의 장점은 하나의 기관에서 진로지도에 관한 모든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기능 중복의 방지를 통한 효율적 자원활용, 유기적인 업무 추진 가능성에 있으나 한 기관에서 모든 대상을 위한 모든 업무를 ‘포괄적이며 깊이 있게’(정철영, 2002) 수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현재 각 부처별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간의 중복성을 검토하고 대상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부처별 사업 수행의 선택과 집중을 피함과 동시에 이러한 연계 고리의 강화를 위하여 상시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이지연·한상근·최동선, 2003)이 제시됨.
- 연계를 총괄하기 위한 기획단 혹은 협력단을 구성하되 이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거나 부처가 중심이 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
- 연계의 주축이 되는 국가적 차원의 진로교육 위원회에서 담당해야 할 일은 부처간 역할 분담 및 연계 방안,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제정, 국가적 차원의 진로교육 기준 제시, 범부처적 접근을 요하는 주요 사업 발굴 및 시행 자문 등
-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할 경우, 진로교육에는 선택 위주의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는 명시적 진로교육만이 아니라 암묵적 진로교육이 중요하며, 이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과 연계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적인 안목으로 바탕으로 방향성을 제시하고 다양한 교육 활동들과의 유기적인 관련을 맺는 것이 가능
- 노동부가 주관할 경우, 고용보험이라는 강력한 재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고용안정센터라는 인프라를 활용하여 적극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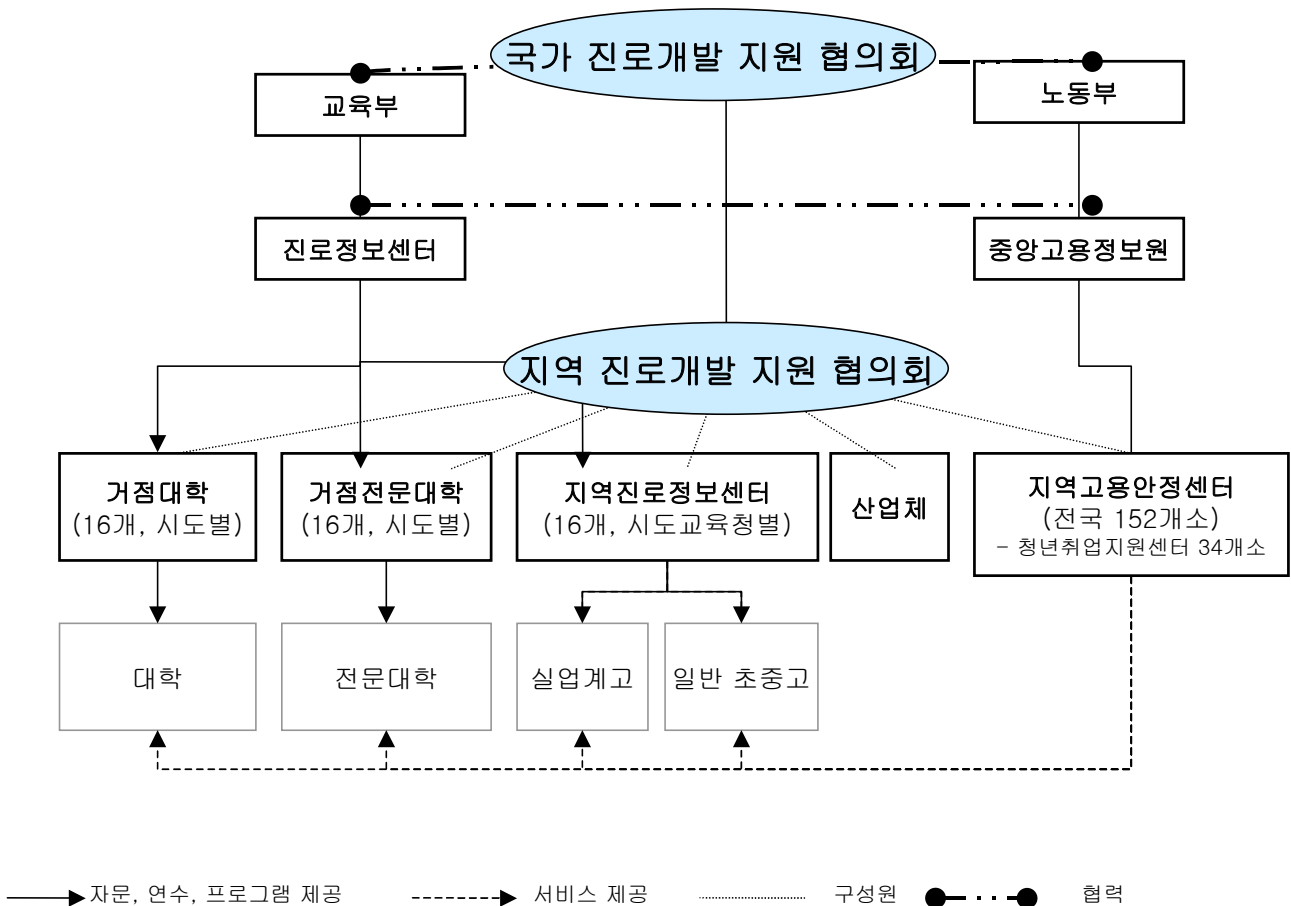


[그림 1] 진로지도 및 교육 관련 부처간 연계 방안

- 국가진로개발 지원협의회가 구성되어 작동된다면, 지방단위에서도 시도교육청의 지역진로정보센터, 고용안정센터, 각 지방의 대표 대학, 산업체들로 구성된 지역 진로개발지원 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지역 진로개발지원협의회는 지역의 진로정보를 생성하고, 자원의 공유를 통한 서비스의 극대화를 꾀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역할을 수행
- 각 지역별로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 서비스의 중심체가 구성되어 중앙의 진로정보센터와의 연계와 자문 아래 지역 특성에 맞는 진로지도 정보의 생성 및 보급, 상담서비스 제공, 교사 연수 및 자문을 제공
- 진로정보센터와 중앙고용정보원은 대상별 역할분담을 기반으로 진로지도 프로그램 및 직업 정보를 생성보급하며, 전문가에 대한 연수를 지원하고 일선의 업무에 대한 자문을 제공

진로지도 주요 당사자간 연계(안)



[그림 2] 진로지도 및 교육 주요 당사자간 연계 방안

2. 국가 진로개발 표준 제시

- 생애단계별 진로개발을 위한 목표가 무엇이며,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작이 필요함.
- 다양한 진로교육 주체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 평가하는데 기준
- 진로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재교육할 때의 교육과정 구성의 기준
- 진로교육 정책 담당자, 연구자, 교육담당자, 산업계 인사가 참여하는 가운데 진로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
- 선진 외국의 경우 대부분 국가적 차원에서 기준을 마련하였음.
- 미국의 경우 국가 수준의 진로개발 지침(National Career Development Guideline: NCDG)를 개발
- 캐나다는 Blueprint for Life/Work Designs를
- 호주는 Australian Blueprint for Career Development를 제작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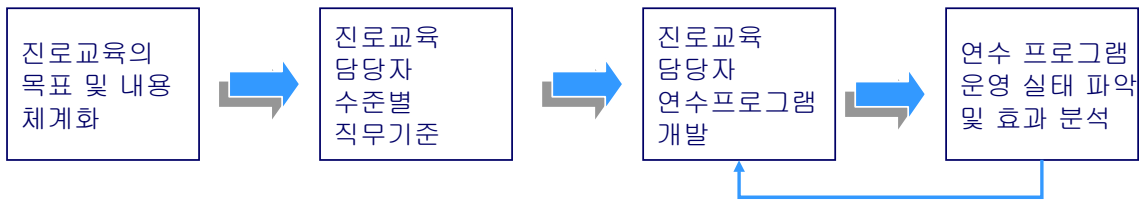
3.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연구 기능 강화

- 진로지도 및 교육 현황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고 업데이트된 정보를 기초로 진로지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비용대비 효과, 그 성과, 취약계층의 요구를 파악하고, 대상별 진로지도 방법에 대한 연구, 관련 정책연구, 전문가 연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심체가 요구됨. 생애진로개발지원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요청됨.
- 영국의 진로연구자문센터(The Careers Research Advisory Centre) 내에 진로교육 및 상담 국가연구소(NICEC: The National Institute for Careers Education and Counselling)에서 이론 개발,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방법론 탐구가 이루어짐.
- 프랑스는 노동 및 직업지도 국가 연구소(INETOP: L'Institut National d'Etude du Travail et d'Orientation Professionnelle -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Labor and Vocational Guidance)에서 진로지도 전문가의 훈련, 진로지도 관련 연구수행
- 현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진로정보센터 운영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가 1999년 국가적 차원에서 진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사업을 위탁한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나 예산 및 인력 등에서 국가적 중심체로서의 제약이 있음.
- 기초연구 및 정책연구를 통한 진로지도 정책 제시
- 진로지도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정보 개발
- 종합진로정보망 커리어넷을 통한 정보 및 프로그램의 보급
- 진로개발지원 전문가 연수 및 기관간 연계 주도
-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의 상담서비스 제공
- 각급 학교 및 시도교육청에 대한 자문 제공

- 노동부 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중앙고용정보원에서도 심리검사 개발 및 직업정보 개발 보급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직업정보를 제외하고는 자체 개발이 아니라 외주의 형태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실정임.
- 국가적 차원에서의 리더십이 발휘될 경우 두 기관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과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4. 진로지도 전문가 양성 및 재교육 시스템 구축

- 진로개발지원 인력의 가장 중요한 전문성은 개인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개발의 기초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음. 진로개발지원자의 역할은 내담자로 하여금 직업에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학습을 강화하는 것이며(Krumboltz, 1996) 개인의 진로개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전문가들은 내담자를 평생학습자로 인식하고, 자신은 내담자의 학습을 도와주는자(facilitator)로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함. 진로교육 전문가의 역할을 이와 같이 규정할 때, 검사 결과에 기초하여 진로선택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전통적 진로상담의 모형을 넘어설 필요가 있음.
 - 생애진로개발의 관점, 자율적 진로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 노동시장 및 사회의 변화에 대한 이해
 - 직업세계에 대한 지식과 이해
 - 진로정보원 탐색, 다양한 매체 활용법에 대한 이해
 - 검사도구의 이론적 기반 및 활용에 대한 이해
 - 진로상담의 이론 및 실제에 대한 이해
- 현재 7차 교육과정 상에서 운영되는 진로와 직업 과목은 전공과 무관하게 수업시수가 부족한 교사라면 누구나 맡고 있는 상황이며, 해마다 담당교사가 변경되며, 또한 창의적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경우 담임 교사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지정하고 이들만으로 진로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음.
 - 교사 양성 과정에서 진로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모든 교과 교사에게 제공
 - 지속적으로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제공
 - 학교 진로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구성 및 다양한 활동 기획과 관련된 내용, 암묵적 진로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같이 포괄적인 내용에서부터 학급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활용법과 같은 매우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음.
 - 2004년도의 경우, 시도교육청(1,300명), 중앙고용정보원(1,000명), 기술교육대(1,000)에서 연수를 실시하였으나, 그 내용의 타당성이나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음.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연수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



[그림 3] 진로교육 담당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과정

- 2003년 기준 전체 초등학교 교사의 4.3%, 중학교 교사의 5.5%, 고등학교 교사의 4.2%가 전문상담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교육인적자원부 미발표 자료, 2004), 인성 및 적응에 관한 상담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들이 곧 진로교육을 적극적으로 담당할 인력으로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전문상담교사 양성 과정에서 진로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단위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에 대한 강조는 관리자의 의지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는 인식을 고려할 때, 교장 및 교감을 위한 연수 또한 매우 중요하며, 일반 교과 담당자 및 담임교사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진로교육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교사 이외에 성인진로개발지원 인력, 대학내 진로개발지원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더불어 진행될 필요가 있음.

5. 프로그램과 정보개발 및 e-career development 체제 구축

- 진로개발지원을 위해서는 직업세계의 유연한 변화에 부응하는 직업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Sennett, 1998), 교육과 노동시장을 연계하는 정보의 제공, 양적 정보를 넘어서는 질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체계적 자료 조사에 기초한 상세한 직업정보 시스템
- 광범위한 통계 자료 생성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신뢰로운 정보 생성
- 지역별 직업별 현황과 변화를 유연하게 담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을 지원하고, 저비용 효율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구현을 위한 전문성과 예산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하여 보급하는 것이 필요
- 개인의 교육적 경험들을 계획하고 선택하며 관리하는 가운데, 자기성찰적으로 삶에 대한 주도적인 관리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진로 포트폴리오(가칭)*의 모델을 개발
- 다양한 대상의 요구와 특성에 기초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직업의식 제고 및 직업기초능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통한 수정 보완, 프로그램 활용 효과 제고를 위한 연수 제공

* 외국의 경우 이와 같이 진로와 관련된 학습 및 경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다양한 자료를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영국의 「progress file」, 덴마크의 「education log」, 독일의 「career choice passport」등이 그것이다.

- 개발된 정보와 프로그램은 책자의 형태만이 아니라 인터넷 상에서 개인이 자기주도적으로 자기이해와 정보 탐색 등의 진로개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e-career development 체제 구축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커리어넷은 2004년 8월말 기준으로 51만 여명의 회원이 가입, 심리검사, 직업사전, 학교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탐색을 할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구성된 콘텐츠가 있음. 커리어넷 상에서 일어나는 이용자들의 탐색 및 학습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최적의 학습 여건을 구성하며, 사이버 연수 시스템을 구축하여 양질의 연수 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IV. 결론 및 제언

■ 관점의 변화

- ‘진로’라는 말 자체가 생애에 걸친 다양한 경험의 총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생애진로라는 말에서의 생애는 사족처럼 보일 수도 있음. 그러나 진로교육이 학령기의 특정한 시기에 행해지는 직업 또는 학교 선택에 한정되지 않으며, 평생 동안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개척하고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생애진로개발이라는 용어를 연구자들이 사용해 왔음(진미석·윤형한, 2003; 임언, 2004).
- 국민의 생애진로개발 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대되는 가운데 진로교육 또는 진로지도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함을 선진각국에서 강조(Sultana, 2004; OECD, 2004)하였으며, 그러한 논의의 핵심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진로교육은 이제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
 - 둘째, 평생학습 사회에서의 진로교육의 대상은 중등학생이 아니라 초등학생부터 고령자에 이르는 모든 학습자를 대상
 - 셋째, 한 개인의 일생을 중심으로 볼 때, 진학 및 취업을 위한 특정시기에 한정되지 않으며, 평생 동안 진로개발 지원에 대한 요구가 있음.
 - 넷째, 진로지도 또는 진로교육의 내용이 진로선택에 초점이 있던 것에서 개인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는 것으로 옮겨져야 함.

■ 생애진로개발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

-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관점을 공유하기 위한 논의에서 출발하여 전 국민을 위한 생애에 걸친 진로개발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음. 전국민의 생애에 걸친 체계적 진로개발 지원을 위해서 모든 대상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음.
- 다양한 국면에서 진로지도에 임하고 있는 주체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생애진로개발의 관점에서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전략을 수립하며, 조정능력을 가지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적 차원에서 강력한 리더십이 요청됨. 이를 위하여 각 부처별 타겟 대상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지원을 국가적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가 주체가 되어 수평적 수직적 연계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국가 진로개발지원 협의회' 구성을 제안함.

- 생애단계별 진로개발을 위한 목표가 무엇이며,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하고, 방법은 무엇인가를 안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요청됨. 이를 기준으로 전문가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이 제작되며, 각종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는 준거로서 활용됨.
-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진로개발 지원 서비스의 현황을 주기적·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비용대비 효과 및 성과, 대상별 요구 파악, 정보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전문가 연수를 통하여 국가 진로개발 지원을 위한 허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유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간 연계 및 기능 강화가 요청됨.
- 새로운 방향성에 입각하여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진로개발 지원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기존 인력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각급 학교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진로교육 연수 내용 강화, 고용안정센터 인력의 전문성 강화가 우선적으로 요청됨.
- 전국민에 대한 진로개발 지원을 직접적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할 수는 없으므로, 자기주도적으로 진로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 교육과 노동시장을 연계하는 정보의 제공, 양적 정보를 넘어서는 질적 정보를 생성·보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웹상에서 보급하는 e-career development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앞에서 논의한 연계의 맥락 속에서 Careernet과 Wokrnet을 중심으로 인터넷 상의 진로개발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위에서 제시한 공통적인 정책과제 외에 초·중등학생, 대학생, 성인 대상별 특성에 따른 정책 과제 중 요점은 다음과 같음.
 - 초·중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을 위해서는 교과를 통한 진로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는 진로와 직업 교과목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범교과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음. 또한 정규 교과목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창의적재량활동 및 클럽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인 진로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진로교육의 내용으로는 단순한 진로선택을 넘어서 직업기초능력의 제고를 통하여 개인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을 위한 기초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 대학생의 진로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현재 학생생활연구소와 취업정보센터로 이원화된 조직을 일원화하여 종합취업지원센터 또는 진로개발지원센터 등으로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는 이미 교육부의 정책의 하나로 제시되어 일부 학교에서 시행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나 일원화 자체만이 목적이 아니며 그 과정에서 구성원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조직의 체계화, 운영의 내실화가 따를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지원하는 과정이 요구됨.
 - 성인의 진로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공공고용안정센터의 기능 내실화와 기업의 진로개발 지원 촉진이 요구됨.

참 고 문 헌

- 김승택·신현구(2004). 『공공·민간 직업안정기관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노동연구원.
- 서우석(2002). 「인적 자원 개발과 초등학교 진로 교육」. 『진로교육연구』, 15, 213-235. 한국진로교육학회.
- 박운영(2004). 「성인 진로개발의 현황 및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정보센터 5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 송병국(2002).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진로교육 위상과 실천 방안」. 『진로교육연구』, 15, 235-256. 한국진로교육학회.
- 이재창(1986). 「진로상담에 관한 연구-체계적 상담모형과 의사결정 모형을 중심으로」. 『교육논총』, 2, 67-90. 홍익대학교.
- 이지연·한상근·최동선(2003). 『생애단계별 진로지도 활성화를 위한 기관간 연계체제 구축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 언(2002). 「평생학습 사회에서의 진로 개발 모형 : 멀티플레이어」. 『진로교육연구』, 15, 177-193. 한국진로교육학회.
- 임 언·정윤경(2002). 『적성검사 효과 분석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 언(2004). 「청년실업에 대비한 진로교육의 방향」. 『청년실업에 대비한 진로교육정책』. 진로교육학회 제18차 춘계학술대회자료집.
- 임 언(2004). 「진로교육의 현안 및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정보센터 5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 장석민·윤형한(2003). 『전문대학 취업지도 강화대책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진미석(2000). 『중고등학생을 위한 진로지도체제 구축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진미석·윤형한(2003). 『성인진로개발 지원체제 구축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진미석(2004). 「대안교육 운동으로서의 진로교육」.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정보센터 5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 정철영(2002).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 운영체제의 실태 및 개선방안」. 『진로교육연구』, 15, 1-28. 한국진로교육학회.
- 정철영(2004). 「대안교육 운동으로서의 진로교육 토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정보센터 5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 최동선(2003). 『청소년 진로개발을 위한 정책 방향성 탐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Bezanson, L. & Hiebert, B. (1996). Career Development in Canada: An emerging national strategy. In R. Feller & G. Walz(Eds.), *Career development in turbulent times: Exploring work, learning and careers*(pp. 349-362). Greenboro, NC: Educational Resources Information Center, Counseling and Students services Clearinghouse.
- DfES(2003). *Careers Education and Guidance in England, a national framework 11-19*. 2003.
- Herr, E. L.(1996). Perspectives on ecological context, social policy, and career guidance. *The*

-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5, 5-19.
- Gahris, C.(1999). *Ohio's accountability system for career development: How do we know we make a difference?*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429 171).
- Ginzberg, E., Ginsburg, S. W., Axelrad, S., & Herma, J.(1951). *Occupational choice: An approach to a general theory*. New York:Columbia University Press.
- Gysbers, N.(1996). Beyond Career Development-Life Career Development Revisited. In R. Feller & G. Walz(Eds.), in *Career development in turbulent times: Exploring work, learning and careers*(pp. 395-403). Greenboro, NC: Educational Resources Information Center, Counseling and Students services Clearinghouse.
- Kileen, j., Watts, T., & Kidd, J.(1999). Social benefits of career guidance. *NIECE Brief*. Cambridge: The National Institute for Career Education and Counselling.
- Lent, R. W.(1996). Career counselling, science, and policy: Revitalizing our paradigm and role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5, 58-64.
- Maddy-Bernstein, C.(2000). Career development issues affecting secondary schools. The Highlight Zone: Research@work, No. 1.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444 035).
- McMahon, M. & Tatham, P.(2002). *Career more than just a job*. Department of Education Training and Youth Affairs (WWW. educationau.edu.au).
- Morris, M., Ickinson, & Davis, D.(2001). *The delivery of career education and guidance in schools*.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 Morris, M., Rudd, P., Nelson, J., & Davies, D.(2000). The contribution of careers education and guidance to school effectiveness in 'partnership' schools. *Research Brief* No 198-199.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 OECD(2004). *Career Guidance and Public Policy*.
- Savickas, M. L.(2000). Renovating the psychology of career. IN A. Collins & R. A. Young(Eds.), *The Future of Career*(pp. 53-6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pokane, A. R., & Oliver, L. W.(1983). The outcomes of vocational intervention. in W. B. Walsh & S. H. Osipow (Eds.), *Handbook of vocational psychology*, 99-131.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Stuart, N., Tyers, C., & Crowder, M.(2000). Outcome form careers education and guidance(phase II)- a tracking study. *Research Brief* RBX 9/00.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 Sternberg & Horvath(Eds.)(1999). *Tacit Knowledge in Professional Practic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Sultana, R. G.(2004). *Guidance policies in the knowledge society: Trends, challenges and responses across Europe*. a Cedefop synthesis report. Luxembourg: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4.

- Super, D. E.(198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6, 282-298.
- Tiedeman, A. (1996). Surfing the quantum: notes of lifecareer developing. in *Career development in turbulent times: Exploring work, learning and careers*(pp. 395-403). Greenboro, NC: Educational Resources Information Center, Counseling and Students services Clearinghouse.
- Walz, G., & Feller, R.(1996). The summing up and a leap to future. In R. Feller & G. Walz(Eds.), in *Career development in turbulent times: Exploring work, learning and careers*(pp. 395-403). Greenboro, NC: Educational Resources Information Center, Counseling and Students services Clearinghouse.
- Watts, A. G. & Sultana, R. G.(2003). Career guidance policies in 37 countries: contrasts and common themes. in R., G., Sultana(2004). *Guidance policies in the knowledge society: Trends, challenges and responses across Europe*. a Cedefop synthesis report. Luxembourg: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4.
- Watts, A. G.(1996). Toward a policy for lifelong career development: a transatlantic perspective.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5, 41-53.